

[Chapter One]

p. 12

Aha!
English

Land of the free!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the + 형용사'는 '~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형용사 + people'과 같은 표현이에요.

ex. Home of the brave(= brave people)! 용감한 사람들의 고국!

p. 14

Aha!
English

"I'm going to run for Third Grade President," said Daniel. "내가 3학년 회장 선거에 출마할 거야." 다니엘이 말했다.

'~할 것이다[예정이다]'라는 뜻으로, 특히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는 'be동사 + going to + 동사원형'을 쓸 수 있어요.

ex. I'm a little scared but I'm going to do it. 나는 조금 무섭지만 그것을 할 것이다.

p. 18

Aha!
English

There were over one hundred or so kids who made up the third grade. 3학년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백 명이 넘는 정도가 있었다.

'~이 있다[있었다]'라는 표현은 'there + be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be동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와 상황에 따라 is, are, was, were 중에서 골라 쓰면 돼요. 여기서의 뒤에 '백 명 이상쯤 아이들'이라고 복수형이 왔고, 과거의 이야기이므로 were를 썼어요.

ex. There are three box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3개의 상자가 있다.

p. 19

Aha!
English

I need to tell our teacher that I'm throwing my hat in the ring. 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링에 내 모자를 던지겠다고 말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고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나타낼 때는 'be동사 + 동사원형-ing'를 쓸 수 있어요.

ex. He is visiting his grandparents this vacation. 그는 이번 방학에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것이다.

p. 21

Aha!
Culture

throw one's hat in(to) the ring 표현의 유래

이 표현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권투 경기를 할 때 상대 선수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링 안에 모자를 던진 것에서 유래했어요. 이 표현은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자주 쓰는 것으로, 이것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루스벨트라고 전해져요. 1912년에 "My hat is in the ring."이라는 말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Chapter Two]

p. 25

Aha!
English

Joey sat on one side of her and Daniel sat on the other side. 조이는 그녀의 한쪽 옆에 앉았고, 다니엘은 다른 편에 앉았다.

두 개 중에서 하나는 one, 남은 다른 하나는 the other이라고 쓰면 돼요.

ex. Two girls came in the class. One was tall, and the other was short. 두 소녀가 교실에 들어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작았다.

p. 26

Aha!
Culture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 선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거인단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기 때문에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의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국민은 자신이 뽑고 싶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투표하고, 이 선거인단은 또 그들이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죠. 하지만 주별로 표를 더 많이 얻은 당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표를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주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다르게 미리 정해지는데, 총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쳐 538명이라고 하네요.

p. 28

Aha!
Culture

미국의 승자 독식 제도

일반 투표로 치러지는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한 표라도 이긴 대통령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차지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방식이에요.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가 이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죠.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과반수인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힙니다.

p. 30

Aha!
Culture

윌리엄 헨리 해리슨(William Henry Harrison)

미국의 9대 대통령으로 23대 대통령을 지낸 벤저민 해리슨의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는 취임 한 달 만에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짧게 재임한 대통령이기도 하죠. 원래 전역 후 인디애나 주지사로 있던 해리슨은 인디언들과의 전투였던 티페카누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해요. 1840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는 러닝메이트로 존 타일러(John Tyler)를 선택했고, 해리슨 사후 존 타일러가 미국의 1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선거 당시 이들의 슬로건이 바로 "Tippecanoe and Tyler, too!"였는데, 해리슨 자신의 별칭인 티페카누와 러닝메이트의 성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 티페카누 전투 모습

p. 33

Aha!
Culture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제도 반대를 표명하며 임기 중에 있었던 남북전쟁에서 북부 주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어요. 1863년에 드디어 노예 해방 선언을 공표했고, 1865년 4월에 워싱턴 포드 극장에서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을 당해요. 대통령 선거 당시 슬로건으로 쓴 "Vote Yourself a Farm."은 '당신을 위한 농장을 투표로 가결하라' 즉, '(농장을 지을) 땅을 얻고 싶으면 내게 투표를 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 링컨 암살 장면

p. 34

Aha!
Culture

캘빈 쿨리지(Calvin Coolidge)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캘빈 쿨리지는 미국의 29대 부통령이자 30대 대통령을 지냈어요. 그의 선거 당시 슬로건인 "Keep Cool With Coolidge."는 '쿨리지와 함께 냉정함[침착함]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또는 '쿨리지와 함께 계속 쿨하게[멋지게] 살자'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Coolidge의 Cool 부분과 운이 맞도록 만든 슬로건이죠.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 다양한 작전을 계획했고, 이후 미국의 3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아이크(Ike)는 그의 애칭인데, 역시 슬로건의 Like와 운이 맞아서 발음할 때 입에 착 붙는 느낌이 들게 되죠.

p. 35

Aha!
English

But everyone calls you Daniel, don't they? 하지만 모두가 널 다니엘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니?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기 위해 평서문 끝에 붙여서 '그렇지?'라고 질문하는 것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요. 부가의문문은 '동사 + 주어?'의 순서로 쓰는데, 이때 동사는 앞 문장의 동사가 긍정이면 부정의 동사로, 앞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써요. 또, 앞 문장의 동사가 일반동사일 때는 do, does, did 중에서 상황과 뒤의 주어에 맞춰 골라 쓰죠.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앞 문장의 주어에 맞는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ex. That's a bit plain, isn't it? 그거 약간 밋밋하다, 그렇지 않니?

p. 36

Aha!
Culture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땅콩과 면화 농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때문에 '땅콩 농부(peanut farmer)'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퇴임 후 '카터 센터'를 설립해 '사랑의 집 짓기(Habitat for Humanity)' 운동을 펼치고,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죠. 그래서 2002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p. 37

Aha!
English

But was it great enough to win over some of the third grade girls? 하지만 그것이 3학년 여자아이 중 일부를 설득할 만큼 충분히 대단한 것이었을까?

'...할 만큼 충분히 ~한'이라는 표현은 '형용사 + enough to + 동사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ex. They are old enough to go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Chapter Three]

p. 44

Aha!
English

"Not every candidate is able to buy buttons," said Mrs. Cooper. "모든 후보자가 배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니." 쿠퍼 선생님이 말했다.

'be동사 + able to + 동사원형'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be동사 + able to'는 can으로 바뀌 쓸 수도 있어요.

ex. I am able to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다.

p. 46

Aha!
English

"You can always drop out," said Joey. "너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 조이가 말했다.

'항상, 언제나'라는 뜻의 always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는 말로 '빈도부사'라고 해요. sometimes(때때로), often(종종), usually(보통)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 be동사와 조동사 뒤에 와요. 조동사는 can처럼 일반동사 앞에 와서 해당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예요.

ex. I usually go to school on foot. 나는 보통 걸어서 학교에 간다.

[Chapter Four]

p. 59

Aha!
English

Then everybody will know who Daniel Streeter is! 그리고 나면 모두가 다니엘 스트리터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의문사 + 동사 + 주어?'의 순서로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 동사의 목적어로 평서문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순서로 바뀌어요. 여기서도 의문문 Who is Daniel Streeter?가 know의 목적어가 되면서 순서가 who Daniel Streeter is가 된 거예요.

ex. I know when your birthday is. 나는 네 생일이 언제인지 안다.

p. 63

Aha!
English

Those votes are going to be much harder to win. 그 표들은 얻기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한/~하게'라는 뜻인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더 ~한/~하게'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비교급 앞에 much, even, far, still, a lot 등을 쓰면 돼요.

ex. She is much taller than me.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p. 65

Aha!
English

Would it be too late to stop Paula's runaway campaign? 그것이 폴라의 일방적인 선거운동을 멈추기엔 너무 늦을 것인가?

'too + 형용사 + to + 동사원형'은 '...하기엔 너무 ~하다', '너무 ...해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ex. It was too dark to play outside. 너무 어두워서 밖에서 놀 수 없었다.